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3월 6일(주일) 제1089호



‘1다락방 1사역’ 선포

공동체 목양대회
신임리더십 000명도 임명

‘1다락방 1사역’이 선포됐다. 어제(3월 5일) 열린 2016 상반기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사회선교부가 주관하는 1다락방 1사역을 선포했다. 1다락방 1사역은 다락방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기관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역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기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역

중의 사역이다(관련기사 4-5면). 앞으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00개 다락방에서 장애인 0곳, 탈북민 0곳, 기관은 00개를 섬길 예정이다.

신임리더십 00도 세워졌다. 신임 순장0000, 신임 다락방장 000가 대표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2016년 상반기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에는 교역자, 장로, 권사, 순

장, 다락방장, 다학청년부 MC, 차세대 코치(총무) 등 리더십 000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0000’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목사는 성도들에게 00000 권면했다.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는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참가자 모집

3월 13일부터 4주 동안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에서

러브소나타 서울본부가 “3월 13일부터 4주 동안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러브소나타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참가접수를 받는다.

일본에서 24번째로 열리는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는 5월 18일과 19

일에 오카야마 심포니홀에서 막 오른다. 18일에는 한일교류만찬회(CEO포럼), 가스펠나이트(전야집회)가 열리고, 19일에는 교회세미나와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다.

러브소나타 집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교회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 김하중 장로, 이기복 교수 등이 강의할 예정이다. 테너 배재철, 소프라노 김영미, 가야금연주

자 이슬기,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박진아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오카야마 현지 실행위원회는 러브소나타 집회 준비가 한창이다. 벌써 10차례 실행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달 20일과 21일에는 쓰야마복음루터교회, 구라시키성약그리스도교회, 코난교회에서 궤기대회를 개최했다.

문의: 02-749-1149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서빙고 3월 23일, 양재 3월 16일

시니어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65세 이상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성훈련과 교육을 통해 여생을 선한 삶으로 안내하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된다. 접수는 개강당일이나 주일 통합데스크에서 하면된다. 회비 3만원.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는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오

후 2시에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성경 속의 전쟁이야기, 음식과 건강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음악여행, 영혼의 돌봄,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요법, 노년의 건강(완전과 척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양재 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는 3월 16일 오전 11시 드림홀에서 개강한다. 회비 5만원.

문의: 02-3215-3221(서빙고) 02-570-7438(양재)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손길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러빙핸즈'라고 부른다. 청색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진다. 교회 곳곳에 러빙핸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화장실, 식당, 교회로비가 반짝거리는 이유는 그들의 섬김 때문이다.

지난 달 28일 러빙핸즈사역팀과 동행했다. 그들이 주일날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체험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러빙핸즈를 8년째 섬기고 있는 우인숙 성도와 함께했다.

교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러빙핸즈'



우인숙 성도가 식당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식당에서 잔반 처리하는 것이 기자의 첫 임무였다. 우인숙 성도는 줄지어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따끈한 국을 건네주고 있었다. 국을 주면서 화상을 입는 것도 봉사하며 겪는 일이라 한다.

잔반 처리 하는 일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양이 엄청난 것을 보고 그동안 편식했던 일을 반성했다.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설거지통에서 식판 나르는 일도 했다. 평생 그렇게 많은 식판은 처음 날라봤다. 다른 러빙핸즈 봉사자들도 구슬땀 흘리고 있었다. 혼자 식판을 치우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차세대들을 보면 달려가서 도와줬다.

이번에는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휴지를 주었다. 목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고 집게로 휴지를 주웠다. 분당 의사 아래, 구석진 곳에 떨어진 휴지가 생각보다 많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러빙핸즈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직분을 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친절하게 대답해주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다. 정말 쉴 새 없이 봉사하고 있었다.

우인숙 성도와 러빙핸즈 그리고 예수님

기자가 동행한 우인숙 성도는 러빙핸즈에서 8년째 봉사하고 있다. 그녀는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봉사한다. 러빙핸즈에서 가장 오랜 시간 봉사하는 봉사자다.

“러빙핸즈는 정말 고마운 곳이에요. 늘 감사하고, 기쁘게 섬길 수 있거든요.”

봉사하면서 어려운 일도 여러 번 겪었다. 한 번은 식당 배식봉사를 하다 화상을 입기도 했다. 한 성도가 실수로 그녀의 손에 뜨거운 국을 엮은 것이었다. 뜨겁고, 아프고, 많이 놀랐지만 그 성도가 당황할까봐 의연하게 대처했다. 얼른 주방으로 달려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인숙 성도뿐만 아니라 러빙핸즈 봉사자들 모두가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같이 성품도 훌륭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다른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녀는 2007년 10월 둘째 주부터 온누리교회에 출석했다. 온누리교회에 처음 온 날짜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날이 특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태신앙이지만 28년 동안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직장생활과 집안일에

치여 교회에 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남편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다.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곧장 남편과 교회에 등록했다.

“당시 목사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2008년 4월, 하용조 목사가 7주 동안 십자가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설교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놨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당시 그녀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던 양육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해줬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이 자연스레 하나님께 향했다. 빠짐없이 새벽예배에도 출석하게 됐다. 하나님을 더 알고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라고 기도하고 교회에 왔는데 청색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하고 있는 러빙핸즈가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궁

금해서 러빙핸즈 사무실을 찾아갔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지만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러빙핸즈 봉사자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줬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곳이 바로 러빙핸즈다.

“러빙핸즈 봉사자로 헌신해주세요”

러빙핸즈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 좌측에 있다. 매주일 2부예배가 끝나면 러빙핸즈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봉사한다. 식당 봉사팀, 화장실 청소팀, 쌍용공원 청소팀 등이 교회 구석구석을 돌고 돌고 있다.

우인숙 성도는 오후 2시가 가장 바빴다. 식당청소와 뒷정리까지 했다. 한 시간 동안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쉬지도 않고 곧장 분당으로 향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분당을 청소한다. 성도들이 두고 간 주보, 휴지, 성찬컵 등을 정리했다. 그 다음은 카페다. 테이블 아래 있는 휴지를 줍고, 물걸레질과 빗자루질을 했다. 교회 마당, 화장실, 지하 1~2층 계단도 돌고 돌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쉴 새 없이 봉사했다. 러빙핸즈와 함께 보낸 7시간이 전혀 길지 않았다. 그만큼 할 일이 많았다. 온몸이 쭈시고 결렸다. 하루 봉사하고도 이렇게 힘든데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러빙핸즈팀은 오죽할까. 우리가 그들의 집을 나눠지면 좋겠다. 특히 젊은 봉사자들이 적다. 더 많은 성도들이 러빙핸즈에 관심을 갖고 봉사자로 헌신해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작은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도 신중하게, 교회식당에서 식사할 때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러빙핸즈

청소봉사 (주일 오전·오후 : 교회 내 화장실, 복도, 계단, 교회 외곽)

식당봉사 (주일 오전 : 11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꽃꽂이봉사 (토요일 오후 : 교회예식에 사용된 꽃 재활용, 헌금대·사무실·화장실 등에 배치)

문의: 010-3529-4847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사도행전 15:1~11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중세교회의 어두운 먹구름을 걷하게 하고,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진리를 옹호하고, 고백하고,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건강하고 순수했습니다. 이 진리가 희석되고, 분명하게 증거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방황하고, 배교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보면서 중세교회와 닮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패, 목회자의 타락 등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도 원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전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회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진리를 사도들이 확인하고, 경험하고, 결정한 첫 번째 교회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첫 번째 교단 총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 회의의 발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선교기지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이후 안디옥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감격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지역에 머물면서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들은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율

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은 큰 충돌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과 대립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토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들과 같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중요한 지도자들조차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몇몇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슬그머니 식사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바나바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이런 것은 위선이다.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자리를 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피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뿌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로 통해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교회에서 오랜 시간 토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토론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 등 중요한 지도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에게 지위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7~11절).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 내려온 동물들은 레위기의 율법에 근거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이 베드로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존중했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고넬료와 일행들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고넬료와 일행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적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고 도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나바가 자신의 체험을 간증했습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12절).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짧은 구절로 요약했을까요. 너무 길었기 때문에 모두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사도행전 이 상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이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19~20절).

야고보의 지혜를 통해서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울 수 없다. 단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혐오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원을 뛰어넘어 덕과 배려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키자고 결정했습니다. 이 안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 결정은 복음으로 율법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순수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적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진리입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 중세교회 사람들의 생각과 가르침이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는 그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로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명확하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백 년 후입니다.

〈13면에 계속〉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1다락방 1사역’, “하나님 영광, 섬김의 기쁨 누리게 될 것”

1. 사회선교의 신학적 이해 2. 1다락방 1사역

2016 상반기 목양대회에서 사회선교부가 주관하는 ‘1다락방 1사역’이 선포됐다. 1다락방 1사역은 다락방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기관을 지속적으로 돕는 사역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역이다. 사회선교부 본부장 이기훈 목사가 ‘1다락방 1사역’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부 본부장)

몇 년 전부터 국내외 경제계에서 사회적 기업 붐이 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기업이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고용 창출을 해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회사를 세우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경영원리를 바꾸는 이유는 생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소비자를 돈을 벌게 해주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기업으로 변모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기업이 소비자들을 외면하면 언젠가 소비자들이 기업을 외면할 때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 기업들이 사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개념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른다. 선교적 교회란 사회 참여적 교회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선교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돌보아 주며, 때로는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역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한 손에는 예수님, 또 한 손에는 사람들

‘1다락방 1사역’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역이다. 다락방이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전도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1다락방 1사역은 온누리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다락방 1사역은 모이는 교회와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균형을 갖추게 만든다. 교회는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공동체)인 동시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각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설명하였다(고전 3:16-17).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을 잘해야 하지만 흠어지는 것도 잘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모이다가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흠어졌고, 흠어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교회가 세워졌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 성령께서 교회를 핍박을 통해 흠으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균형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1다락방 1사역은 성도들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한다. 예배가 성숙하려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과 흠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성숙한 반면, 흠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매우 미숙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큐티에서는 적용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롬 12:1)이 되는 방법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속한 지역에서 몸으로 섬기는 것은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1다락방 1사역은 섬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예배처소가 되게 한다.

신앙과 삶이 균형 맞추는 ‘성경적 교회’

셋째, 1다락방 1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행위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위는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국 1다락방 1사역은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는 사역이다. 또한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

의 모습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은 일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흠어지는 기능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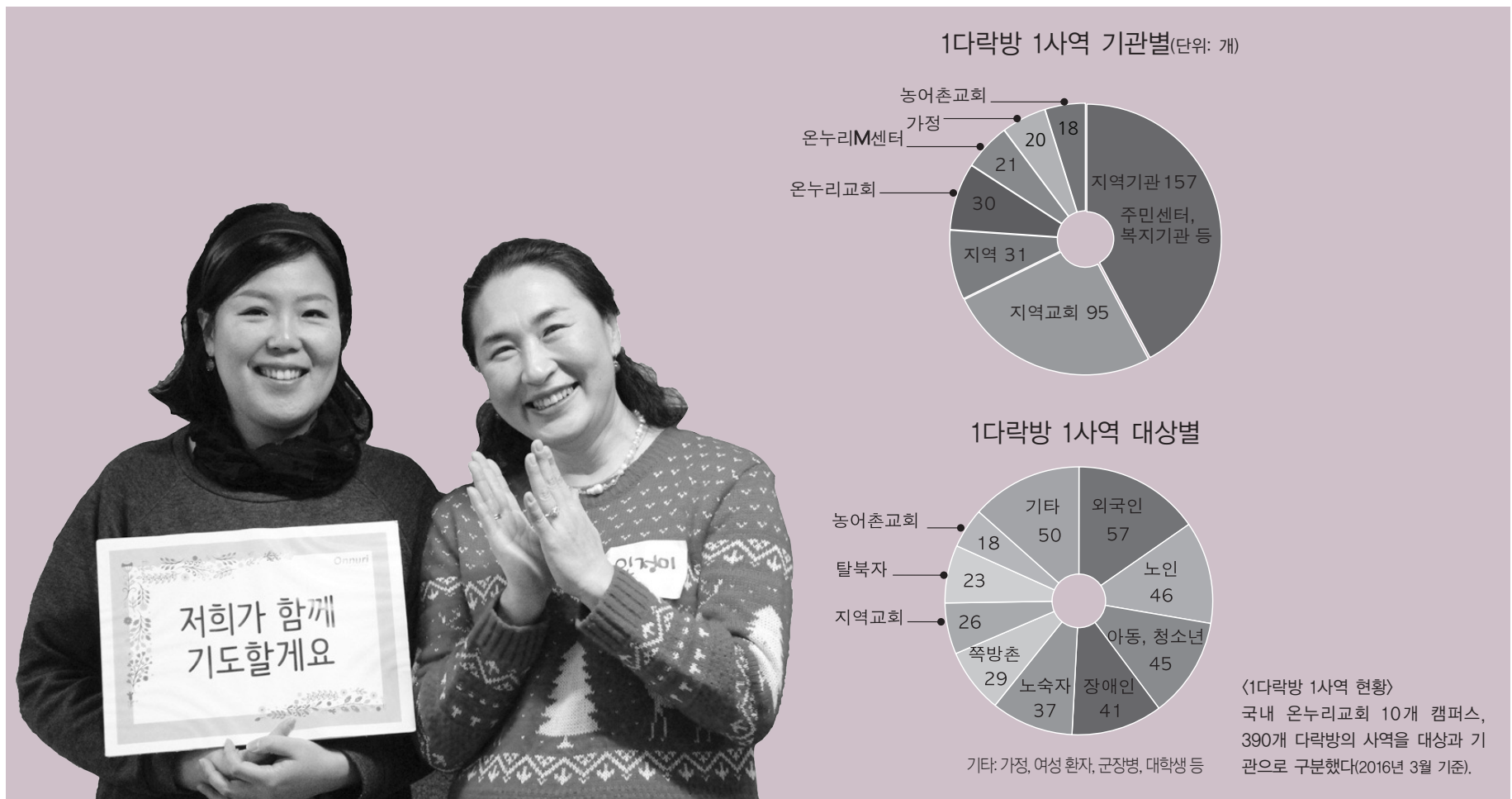
1다락방 1사역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을 우리도 찾아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역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역 중의 사역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할 때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했고, 숫자에 중독이 되어 안주하였다.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취약계층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외면했다. 성전은 성전만을 위해 존재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성전에 가둬놓으려고 했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성향이 강했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면 언젠가 교회도 그들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한다. 1다락방 1사역은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사역이다.



사역 중의 사역



다락방별로, 속한 지역사회에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1다락방 1사역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역을 지속하되 더 심화시킨다. 만약 이전에 나눔 중심의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관계 맺기를 우선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공동체별로 혹은 순별로 사역한 곳이 많다. 금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섬겨도 무방하지만, 점차 다락방 사역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공동체가 속해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한다. 기존에 해오던 타지역 사역을 지속해도 무방하지만, 점차적으로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사역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사역할 수 있다. 공동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을 위한 교회가 많은 지역, 다문화가정이나 외국 유학생이 많은 지역, 난민 사역을 하는 기관이 있는 지역, 탈북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노숙자가 많은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사역할 수 있다.

넷째, 사역을 융합할 수도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지역에서 이미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타 교회나 선교기관, NGO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좋다. 꼭 우리들이 주관하는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진행하는 사역도 지향한다.

다섯째, 사역 대상은 다양하다. 공동체가 속한 지역의 미자립 교회, 농어촌교회, 기관, 시설 또는 독거노인, 미혼모 가정, 부모 없는 자녀 등 개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특히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상생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것이다.

눈높이 맞추고, 관계 맺기가 우선

1다락방 1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첫째, 다락방원들이 1다락방 1사역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명감도 생기고, 그 소명감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역의 기본이 중보기도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 다락방이 하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 단순한 공동체(communitas)에서 기도와 마음, 물질과 삶을 나누는 영적 공동체(communitas)가 될 수 있다.

둘째, 섬김의 대상자들에게 접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 바로 관계 맺기다. 만약에 관계 맺기보다 물질이 앞서면 좋은 관계 형성이 어렵다.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물질이 끊어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어 있다.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얻은 교훈이다.

1다락방 1사역 첫 해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려는 선한 동기가 보여야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된다. 이를 위해서 전화하기, 문자로 소통하기, 말벗하기, 생일 챙겨주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셋째, 나눔을 할 때는 지나치게 많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기대를 갖게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상한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항상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춰 겸손과 온유함으로 상대를 해야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나눔에는 예산이 뒤따르는 법이다. 그런데 소요될 예산은 아직 교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서 세워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은 공동체 예산과 순 헌금 중 일부를 활용해서 충당하면 좋겠다.

그동안 아웃리치하면 해외나 국내의 먼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다락방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지가 아웃리치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웃리치는 1년에 한 차례 혹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회선교는 관계 맺기를 우선시키기 때문에 아웃리치가 지속적인 관계 유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 지역, 필요에 따라 사역 실시

한 예로 독거노인들이 사는 집은 도배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럴 때 낱을 잡아 도배를 해준다거나 혹은 집안을 수리해 주는 것도 훌륭한 아웃리치가 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근교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많다. 그들을 찾아가 교회 시설을 보수해 주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해 주는 것 또한 훌륭하다.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 다락방 식구들이 소품을 함께 간다거나 문화체험을 하는 것도 좋은 예이다. 요즘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영화를 상영해주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대상자들이 어린이일 경우는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림을 크게 그려본다면, 대상자들을 상대로 맞춤형도집회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자녀들과 동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섬기는 자리에 동참하면 건강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과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다락방 1사역은 보여주기를 위한 사역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하는 것이다.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교회가 해야만 하는 사역인 동시에 온누리교회를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사역이다. 모든 다락방이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뿐 아니라 섬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대교회로 네 번째 아웃리치 갑시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섯 번째 주인공은 경상남도 산청군 내대교회(박성환 목사)다. 지난 2월 29일 내대교회를 다녀왔다.

산속 날씨는 정말 종잡을 수 없나 보다. 대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칼바람이 온몸을 찔러댔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경상남도 산청군 내대교회를 찾아가는 길부터 험난했다.

우여곡절 끝에 내대교회에 도착했다. 그런데 교회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십자가는 기울어져 있고, 교회 지붕은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다. 자칫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다.

“며칠 전에는 이것보다 더 큰 풍해를 입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바람이 심한 곳이긴 하지만 그날은 유독 심하더라고요.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나무허리가 꺾이고, 교회지붕 한 쪽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지난 2월 14일 새벽 4시에 있었던 일이란다. 산비탈과 계곡에서 몰아치는 거친 바람이 내대교회를 그대로 덮쳤다. 포탄을 맞은 듯 교회 지붕 한쪽이 날아갔다. 찢긴 지붕 파편들이 십자가에 위태롭게 걸려있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친 사람이 없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교회 재정이 바닥이었다. 인부를 부를 수도, 지붕을 보수할 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어려웠다. 아쩔 수 없이 가장 싼 합석을 사다 박 목사가 직접 수리했다. 그레바야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어려움이 닥친 내대교회를 돕기 위해 ‘지리산 선교동지회’ 목사들도 모였다. 내대교회의 딱한 사정을 들은 성도들도 마음을 모았다. 그 덕에 임시방편이었던 합석을 거둬내고 두툼한 자재로 지붕을 덮을 수 있었다. 수리비용을 감당하고도 현금이 조금 남았다. 박 목사는 이 일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다고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말하는 그의 눈가가 촉촉했다.

지붕수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 몇 주 동안 지붕에 올라 보수공사를 한 박 목사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윤정임 사모는 박 목사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 와중에 박 목사는 육신은 피곤하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 그의 신앙이 보석처럼 빛났다.

청소년 캠프, 집수리,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필요



박성환 목사와 윤정임 사모.

박성환 목사는 40세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다. 2009년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리산 덕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지리산에 젊은 전도사가 왔다”는 소식이 삼시간에 퍼졌다. 당시 그의 나이 사십대 중반이었는데 지리산에서는 청년이었다. 내대교회에서 박 목사에게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박 목사가 어찌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내대교회 성도들이 “박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2011년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박 목사가 내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 그 인연 때문인지 내대교회 성도들의 박 목사 사랑이 대단하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박 목사 자랑이 우선이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교회지붕이 파손됐을 때도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대부분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성도들이 당장 교회지붕을 보수할 만큼의 현금을 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자 성도들 스스로 지인들에게 후원을 부탁했다. 평소 성도들에게 박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이 흔쾌히 현금을 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박 목사 사랑은 성도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도 박 목사를 참 좋아한다. 박 목사가 이 지역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원이 되고, 수도관이 터지거나 전기가 고장 나면 수리공이 된다. 손재주가 좋은 박 목사는 웬만한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박 목사를 보고 “아들딸보다 훨씬 낫다”고 했을까.

지리산 인근 지역은 유교 문화와 토속신앙이 깊게 뿌리 내린 지역 중 하나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민들과 목회자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내대교회 인근에는 청학동이 있다. 내대교회 뒷마을은 무당촌이다. 제당(제사를 지내는 당)이 있는 가정도 흔하다. 박 목사가 주민들을 지극히 섬기지 않았다면 지역 주민들과의 좋은 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그 후

온누리교회의 도움도 한몫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내대교회로 아웃리치를 세 번이나 왔다. 보통 농어촌교회에 일 년에 한 번 정도 아웃리치를 간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횟수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이후 지역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아웃리치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3월 내대교회를 방문해 두 가정 전기배선 공사를 해줬다. 7월에는 농어촌선교팀과 의료선교팀이 연합 아웃리치를 갔다. 복음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선교와 집수리도 해줬다. 연합아웃리치의 여운이 가시기 전인 8월에는 S브릿지공동체가 찾아왔다. 지역 주민들에게 네일아트와 이미용 봉사를 해줬다. 차세대를 위해 공부방도 만들고, 청소년 캠프도 진행했다. 당시 이 지역 차세대들이 모두 모였다. 20명 정도가 캠프에 참석했는데 그들 중 7-8명이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다. 내대교회 성인 성도와 비슷한 숫자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이후 내대교회 차세대가 부흥하고 있다.

부모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온누리교회가 세 차례에 걸쳐 아웃리치를 실시한 이후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있



박성환 목사가 지붕 수리를 하고 있다.

다. 이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대교회 이렇게 도와주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내대교회를 또 한 번 도왔으면 좋겠다. 내대교회로 네 번째 아웃리치를 가자. 박 목사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열려 있다. 주민들을 한번 더 찾아가 복음을 전하자. 분명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수리, 이미용 봉사, 의료선교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이 지역 차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자. 인근에 학교가 있어 청소년들이 꽤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 캠프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대교회 박 목사가 직접 생산한 꽃감과 블루베리를 구매하는 것도 좋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교회 재정자립에 도움이 된다. 교회 보수공사를 위한 후원도 좋다.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문의: 서빙고 농어촌선교팀

구자엽 팀장 010-4286-0078

내대교회 박성환 목사 010-3790-6887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감사합니다

지난 1월 31일 ‘월전교회를 도웁시다!’ 기사 보도 이후 두 분의 성도님이 월전교회에 각각 5백만 원과 십만 원을 헌금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3월 14일부터 월전교회 보수공사가 시작됩니다.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 호스피스학교에서 배우세요!

3월 2일부터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시행



김정숙 목사
(삼성서울병원 선교, 온누리 호스피스 담당)

강00 집사님(85)은 모 건설회사 사장님이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다. 4남매를 잘 양육하며 행복한 일생을 살아오셨다. 그런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투병하면서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다. 10년이 길고도 짧은 순간처럼 지나갔다. 아내 장00 권사님께서도 오래 전부터 허리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거기에 다 남편의 암 투병으로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다.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울고 웃으며 투병생활을 잘 해오셨다. 그런데 몇 달 전 “이제 병원에서 해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의료진의 선언을 듣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은 완치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어려운 수술과 항암치료, 여러 가지 검사 등을 견디어 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곧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가슴 아픈 사연

환자들은 대형병원에서 친절한 의료진들에게 치료받으며 그들의 얼굴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는다. 그리고 병이 호전되어 집에 가곤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강 집사님의 경우가 그렇다. 어느 날 ‘00요양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됐다. 미리 알지 못했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좁은 방에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어르신들과 한 방에서 지내야했다. 먼저 입원한 사람들의 눈망울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거부감이 들었다. 단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은 심정을 숨길 수 없었다. ‘왜 내가 이곳에 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다. 그리고는 “제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셨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기가 최선이라는 것을 안다. 적응할 때까지 반복되는 감정의 기복에 지쳐가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환자는 의식이 희미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에 가고 싶어했다. 환자가 이 시기가 되면 매우 이기적이고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다.

다행히 강 집사님은 자녀들이 가까이 있었다. 매일 오전, 오후, 저녁시간 강 집사님을 찾아갔지만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곤 했다. 이것은 하나의 시위 방법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허리가 많이 편찮은 아내가 집에서 강 집사님을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해 보지만 분노가 가득해진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자녀들의 방문을 외면하고, 아내에게도 화를 내고 협박도 했다. 아직 본인이 말기암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 본인의 몸 상태를



온누리 호스피스는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위로하는 사역이다.

받아들일 때까지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이길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벽을 치기도 하고, 무작정 신발을 신고 집으로 가려는 행동을 반복했다.

몇 개월이 몇 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제 육체가 쇠잔 해가면서 외적인 행동이 적어졌다. 이때가 가족들이 한 숨 돌리는 시간이다. 옆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은 일찍이 상황을 받아들이셨나보다. 찾아오는 가족도 별로 없었다. 간혹 와서도 10분 정도 얼굴만 내밀다 가 버린다. 그 사람이 정말 자녀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 강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한 분이신가. 네 자녀가 시간을 정해서 방문하는데 집에 가자고 보낼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나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한다.

강 집사님의 몸에는 몇 개의 튜브가 달려 있다. 답즙을 빼는 것과 소변줄과 조금 있으면 위액을 빼지게 하는 튜브를 코에도 꽂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가 보살 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환자는 모른다. 알리고 하지 않으며 이제 죽어도 좋으니 집에 가자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생명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 분향으로 가야 할 때가 가까워지면 환자는 성경대로 분향을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을 수반한 온갖 슬픈 감정들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최근 만난 함00 집사님은 난소암이 온 몸에 전이된 상태였다. 장이 유착되어 섭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심한 통증과 무기력으로 괴로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

“지난 6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곧 완치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어려운 항암치료를 다 이겨냈는데 이제 말기가 되니 지난 6년의 수고가 다 헛되고 이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죽을지가 걱정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지루한지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너무 먹고 싶습니다. 심한 통증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고 기운이 쇠하여지니 아무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몇 주 전까지 주사 풀대를 의지해서 배를 움켜쥐며 병원 예배에 나오시더니 이제 집사님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온다. 이대로 못 오실 것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목사님 하도 통증이 심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할지

두렵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가 용기가 없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주님’ 하면서요. 요즘 저는 온갖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슬프고, 억울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러워서 눈물이 계속 납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합니다. 집에 가면 좋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이려면 모르핀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원일수로 인한 암환자의 고민)

생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수반된다. 마지막 시간은 집에서 보내고 싶지만 의료 시설과 의료진의 눈 밖에 벗어나는 두려움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다.

듣고, 위로하고, 손잡고, 말씀으로 생명불어 넣는 사역

국민일보 2015년 12월 12일자 1면에 ‘내년 3월부터 가정호스피스 시범 실시’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 왔다. 환자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 부담하면 집에서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이었다.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도 줄어 들고 말기환자들이 마지막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채워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말기가 된 환자를 집에서 생을 마치도록 하는 일을 교회나 먼저 이해해야 한다. 모든 성도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되어야 한다.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죽음이 임박한 가장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의 손길과 향수가 젖어있는 내 집. 자신의 침대에서 생을 마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다수가 마지막을 함께 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은 나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온누리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훈련된 영적 군사들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은 말기 환자들의 이웃이 되고 있다. 믿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고, 장례까지 돕는다. 그러다보면 가족 모두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경험한다.

2012년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가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말기암 환자 75.9%가 집에서 지내길 원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말기암 환자에게 가장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돌봄을 주는 것이 바로 온누리 호스피스 사역이다. 이 사역을 통해 믿지 않은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귀하게도 온누리 호스피스 사역 봉사자들은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있다.

가정 호스피스가 정책적으로 시행되면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사제가 많아질 것 같다. 그것을 고려해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모두가 받아야 한다. 들어주는 사역, 해답을 줄 수 없는 사역, 위로자로 옆에 있어 주면서 손잡아 주고, 찬양 들려주고, 기도해 주면서 성경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사역이 바로 호스피스사역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질병과 노년의 시기가 오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을 나보다 먼저 경험하고 계신 이웃과 친척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 사역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된 사역이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되겠습니다”

170개국 24시간 방송 ... 이집트, 인도 제작센터 설립 예정

CGNTV(Christian Global Network TV)는 해외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위성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170여 개국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CGNTV 대표 이사 유재건 장로에게 CGNTV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변호사, 국회의원, 대학총장, 방송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져봤지만 CGNTV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가장 크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건 장로는 2012년 12월 CGNTV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광고 하나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 방송하는 선교방송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00% 시청자들의 후원만으로 방송국이 운영된다는 점도 특별했다. 이것 말고도 CGNTV만이 가진 특별함이 또 있었다. 선교·예배공동체, 글로벌(Glocal) 선교교육방송,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글로벌 콘텐츠가 바로 그것이다. 웬만한 기독교 방송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만큼 탁월했다.

“사실 170개국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국이 광고 하나 없이 100% 후원으로만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전 세계에 CGNTV같은 방송국은 없을 것입니다. 방송 콘텐츠도 아주 탁월합니다. 손색이 없는 방송국입니다.”

오랫동안 공종과 방송에 출연하면서 방송과 관련된 일에 일가견이 있는 그가 CGNTV를 보고 가장 크게 놀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해마다 후원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5,837명이던 CGNTV 후원자가 2015년 26,200명으로 늘었다. CGNTV 직원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동참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CGNTV는 선교·예배 공동체입니다. 직원들이 CGNTV를 단순히 돈을 버는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헌신자 선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10분의 1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전 직원이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성안테나도 직접 설치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돌아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1시간씩 직원예배를 드리고, 큐티 나눔도 합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방송선교사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콘텐츠로 승부

CGNTV의 콘텐츠는 현지지역자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선교교육방송이다. 현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GNTV는 3개 지사와 4개 제작센



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해가면서 방송선교의 지경도 넓혀가고 있다.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도 CGNTV의 강점이다. 지난해에는 잊혀진 선교사들을 기리는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와 ‘여성교사, 조선을 비추다’를 제작했다. 한국에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이후 교계에서 호평이 쏟아졌다.

이 외에도 탈북자와 이주민, 중동 난민들과 MK(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들의 이야기도 조망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최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 <KNOCK>를 제작해 젊은이들이 모바일과 웹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시한 <KNOCK>의 콘텐츠 누적재생필수가 200만을 넘어섰는데, ‘예수 믿는 청년’이나 ‘잃은 양 찾기’ 같은 이야기는 평소 기독교에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는 크리스천 문화 지평도 넓혀갈 계획입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소재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나눔 프로젝트 실시 정체성 강화 및 미래 방송환경 연구도

CGNTV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또 있다. 한국교회와 나눔 프로젝트, 글로벌 선교교육방송 정체성 강화, 미래 방송환경 연구와 콘텐츠 제작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교회와 나눔 프로젝트는 CGNTV가 가진 방송 콘텐츠와 노하우를 한국교회와 나누는 것이다. 방송 콘텐츠와 노하우 전수를 위해

‘찾아가는 방송 아카데미’ 사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방송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방송제작, 카메라, 영상 편집 등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교회들이 목회현장에서 방송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글로벌 선교교육방송 정체성 강화는 CGNTV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이하는 일본 CGNTV는 미디어 선교의 현지화와 교회연합이라는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10월에 기념집회를 갖고 일본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글로벌 운영위원회도 발족해 연합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선교교육방송의 비전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한국, 미주, 인도네시아, 홍콩에서 조직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운영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 방송환경 연구와 콘텐츠 제작은 기독교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기독교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시대에서 방송환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현실 과제 중 하나입니다.”

CGNTV는 방송기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예정이다. 그 시도 중 하나가 모바일&웹 전용 콘텐츠 <KNOCK>다. 이미 SNS상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미니휴먼다큐, 웹드라마를 비롯해 세로 비디오, 360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선보인 ‘나침반 바이블’은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목회자들이 출연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제공하고 있다. 6월에는 사회선교와 통일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이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통일한국 프로젝트 ‘함께 갑시다’도 준비하고 있다.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탈북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CGNTV가 아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도 있다.

“올해 말 방송될 예정인 선교 다큐멘터리 ‘서서평 선교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서평 선교사는 100여 년 전 한국 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다. 20년 동안 한센병 환자와 결인, 그리고 고아들을 사랑으로 섬기다 순교한 인물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 선교의 본질과 섬김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만드는 방송

“방송은 대화입니다. 시청자들이 요구하고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GNTV 모니터단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CGNTV 모니터단은 나이와 직업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모니터단 외에도 많은 시청자들의 조언을 여러 각도에서 듣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꼭 당부할 말이 있다고 했다.

“CGNTV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세계 곳곳에 지사와 제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집트 CGNTV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이슬람 선교의 영적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인도 CGNTV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기도해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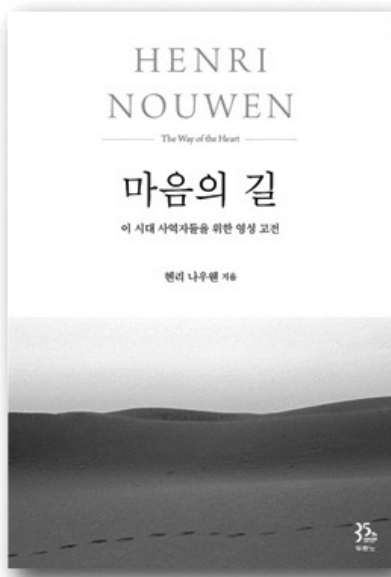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문화칼럼

김성욱 목사
(서빙고 차세대)

〈마음의 길〉을 읽고



벗어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한국 사회는 이미 피로 사회다.”

독일에 있는 우리나라 철학자가 한 말이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탁월한 정보를 가지려고 한다. 현대사회는 자신을 가다듬기도 바쁜 시대가 됐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상유지 하는 것도 벅차다.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물질사회는 우리에게 무력감을 준다. 우리는 지금 작고 큰 분노로 표현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둘러보면 이러한 현상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청소년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이 공부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는 시간 외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 성공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인 것을 보면 한국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한지를 잘 드러내 준다.

헨리 나우웬의 〈마음의 길〉은 분주한 현대인들의 하루를 재조명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내용이다. 헨리 나우웬이 많은 저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결 같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재정의 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C.S. 루이스의 〈스쿠르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삼촌이 편지로 이야기하듯 인류에게 찾아온 안정감은 기독교와 영성에 새로운 위기를 가져왔었다. 헨리 나우웬의 〈마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다. 헨리 나우웬은 〈마음의 길〉에서 사막으로 떠난 교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할 길을 설명했다. 많은 교부들이 박해가 끝난 기독교 평화시대에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 조금 더 안정된 시간을 유지하고, 손에 쥘 것을 놓지 않기 위해 애썼다.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투쟁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 4세기 궁전의 교육자이자 교부였던 아르세우스는 자신의 변질된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사막으로 떠났다. 그가 사막에서 만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벗어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였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독, 침묵, 기도’라는 세 가지 주제를 기술했다. 먼저,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고독을 통해 자신만의 광야를 만들 것을 권면했다. 침묵은 단지 입을 굳게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도는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영적 사막’이 어디인지를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사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렵지만, 나의 소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혼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신을 벗은 것처럼 말이다. 또 모두가 나를 외면할지도 모르는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고독도 필요하다.

헨리 나우웬의 〈마음의 길〉을 읽고, 각자가 ‘영적 사막’을 대담하게 만들기를 바란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내면에 잠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크리스천 시인 윤동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윤동주와 친구들(오른쪽이 윤동주 시인).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만주 북간도 명동촌 일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명은 해처럼 빛나라는 의미에서 ‘해환(海煥)’이었다. 아버지 윤영석과 어머니 김룡 사이에서 맏이로 태어난 그는 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집안은 당시 명동촌에서 손꼽히는 유지였다. 할아버지 윤하현은 소지주였고, 명동에 세워진 교회 장로였다.

당시 만주 북간도 일대는 항일감정이 대단한 지역이었다. 일본을 일본이라 부르지 않고 ‘일본’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윤동주도 지역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서인지 항일감정이 컸다. 18세에 일본군사들의 먹살을 잡기도 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민족주의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는 연희전문학교 문과(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 진학했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의 뜻을 꺾지 못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다니던 시절 신사참배와 삶에 대한 고뇌가 그를 괴롭게 했다. 암울한 조국 현실을 생각하면 서 별 헤는 밤, 서시, 자화상, 참회록 등을 썼다.

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그의 시는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에 따른 구성이 특징이다. 시 ‘십자가’에는 일제 강점기의 고난을 짊어지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것은 높은 침탑만큼 광복의 길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기독교적 생활이 익숙했다. 가정예배를 드렸고, 주일이면 교회에 갔다. 대학까지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매주 몇 번씩 예배를 드렸다. 청년 시절 반기독교적 사회 현실과 맞부딪치면서 인생관에 심한 도전을 받고, 좌절하기도 했다. 그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표상이 아니었다. 예수가, 예수의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신사참배와 전쟁을 강요하던 당시 교회들은 아무런 희망의 종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가 느낀 고독과 괴로움, 절망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괴로움과 십자가에 대한 송고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길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다.

크리스천 독립운동가 윤동주와 송몽규

윤동주를 말하면서 송몽규를 빼놓을 수 없다. 송몽규는 윤동주와 고종사촌 지간으로 한 집에서 살았다. 송몽규는 1917년 9월 28일에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겸 수필가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몽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윤동주는 내성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43년 7월 10일 송몽규가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됐고, 나흘 뒤 윤동주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그 둘은 같은 형무소에 잡혀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수사관에 의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윤동주는 원고에 문제가 있고, 송몽규는 재교토 조선인학생 민족주의그룹 사건을 책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됐다.

광복을 몇 달 앞둔 1945년 2월 16일, 윤동주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절명했고, 며칠 뒤 3월 7일 송몽규는 눈을 감지 못한 채 사망했다. 후쿠오카 화장장에서 재가 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차세대 부흥집회 ... 가정, 교사, 부모 역할 강조
3월 9일 양금희 교수 ‘청소년, 교사에게 필요한 영성’ 강의

차세대 교사들을 위한 부흥집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선생님’이 지난 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올랐다. 이날 집회에는 차세대 교사와 학부모 1200명이 참석했다.

강기석 장로의 대표기도가 포문을 열었다. 강 장로는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차세대들을 잘 양육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설교는 ‘신앙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를 주제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가 했다. 유 목사는 설교에서 “교사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차세대들을 양육할 것”을 강조했다.

이신혜 교사(양재 유아부 교사)는 “그동안 차세대들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것을 반성했다”면서 “앞으로는 사랑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온누



차세대 부흥집회에서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다.

리교회 차세대 교사 겸 학부모 성나영 성도는 “이날 집회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차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차세대 부흥집회는 3월 9일에도

열린다. 서빙고 본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양금희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가 청소년 영성과 차세대 교사에게 필요한 영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설교 요약

신앙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담임)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자라났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점검하고, 신앙성숙을 이루아가야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

지 않는다면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다음세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는 20-30년을 내다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학교를 닮

보다 가정을 닮아야 합니다. 교사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다음세대에게 결정권을 주지 못하고, 어른의 잣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둘째,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전도입니다. 세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차세대 교육입니다. 우리는 다음세대의 전도자이자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교사는 차세대의 영적 상태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차세대들이 삶에서 말씀을 점검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영성일기를 쓰도록 해서 주님과 동행한 하루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교사의 영성은 곧 차세대 영성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교사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8주년 기념행사

흠커밍데이 예배, 전교인 헌혈행사 실시

지난 주일(2월 28일)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8주년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흠커밍데이예배와 전교인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열린 흠커밍데이 예배에서는 송정미(CCM가수) 사모 초청 찬양콘서트가 열렸다. 설교는 늘 푸른교회 과수광 목사가 했다. 이날 송정미 사모는 10곡 넘는 찬양을 불러 좌중들의 마음을 녹였고, 과수광 목사는

‘광야의 잔치’를 주제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교회창립 8주년 행사에는 캠퍼스 협력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장로, 강동 온누리교회 초대 대표장로 최득린 장로(서빙고공동체), 남양주 온누리교회 박덕현 장로, 수원 온누리교회 오상록 장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득린 장로는 “강동 온누리교회가 서울 전 지역을 덮는 거룩한 복음의 파

도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했고, 오상록 장로는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돈독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전교인 헌혈 행사를 열고 이웃 사랑도 실천했다. 11층 꿈아이홀 어린이 도서관에서 열린 헌혈 행사는 중앙대학교 병원 헌혈센터 의료진들이 섬겼다. 헌혈센터 관계자는 “최근 금금이 불안할 만큼 혈액이 부족했는데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헌혈 행사를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의선 장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강동 온누리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현주 기자

대학청년부 구국기도회 개최

청년 758명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위한 기도

대학청년부가 삼일절을 맞아 구국기도회를 열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구국기도회에는 청년 758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 다음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부르짖었다.

이날 설교에서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부장)는 “변화는 기도와 회개에서 나온다”면서 “나부터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김영창 목사(W공동체)가 문화와 언론, 가정과 사회에 복음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최성민

목사(허브공동체)는 국가의 공의와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과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김한나 자매(SNS공동체)는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했고, 김채윤 자매(새성남교회)는 “구국기도회에 참석했는데 매우 뜻 깊었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매년 삼일절에 구국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김미림 기자

“나눔장터에 기증하세요”

서빙고 지하주차장 입구, 식당 옆 위치

서빙고 나눔장터사역팀에서는 입지 않는 옷이나 신발, 가방, 액세서리, 소형가전 등 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다.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을 재판매해 선교나 구제지역 등에 사용하고 있다. 기증할 물품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수거함이나 나눔장터(지하 1층 식당 옆)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필요한 물품을 1,000~5,000원에 구입할 수도 있다.

나눔장터사역팀 남정진 장로는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눔으로써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서선교 집사 (010-8752-2222)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39회 직장인선교대회 개최

“직장선교는 선택이 아닌 특권이자 명령”

지난 3월 1일 직장인성경공부모임 ‘BBB(Business Bible Belt)’가 주최하는 제39회 직장인선교대회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를 주제로 최봉오 목사(BBB 대표), 문봉주 목사(동경 온누리교회), 송태근 목사(삼일교회)가 강의했다. 최봉오 목사는 “직장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특권이고 명령”이라고 했고, 문봉주 목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근 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소명과 사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삼일절에 개최되는 직장인선교대회는 직장복음화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다. / 이소정 기자

모 집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한다. 초등학교 2학년(10세)부터 중학교 2학년(15세)이 대상이다. 오디션은 3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자유곡 1곡을 준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로 오면 된다. 문의: 010-2561-8633

서빙고·양재 꿈아이놀이터

서빙고 꿈아이놀이터에서 생후 20개월부터 36개월 자녀와 부모를 모집한다. 3월 30일(수)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서빙고 꿈아이홀에서 진행된다. 양재는 3월 17일(목)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양재 꿈아이홀에서 한다. 회비는 15만원.

문의: (서빙고)김경희 코치(010-8877-3584) / (양재) 조옥분 총무(010-8340-2367)

유대인 랍비에게 듣는 성경 이야기

‘정통 유대인 랍비와 함께하는 성경여행’이 오는 9월(수)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뉴욕 힐크레스트 유대회당장 랍비 마네스 코건이 강의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10-7927-7075(www.wikiid.kr)

제1089호 | 2016년 3월 6일(주일)

■ 2000선교 후원사역부 간증



/ 손은희 권사(동대문중랑공동체)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2000선교본부에서 처음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할 당시만 해도 상황이 열악했다. 당시 손정래 장로님께서 내게 제안하셨다.

“후원사역부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아무런 고민 없이 “순종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렇게 ‘온누리에서 온 편지’의 제1호 중보기도팀이 신설되었다.

나는 중보기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온누리에서 온 편지 대륙별 기도모임’에 동참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다. 내가 맡은 대륙은 아프리카였다. 중보기도모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부터는 공동체 권사님들과 지인들에게 대륙별 기도모임에 참여해달라고 광고하고 다녔다. 성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요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

온누리에서 온 편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된다. 차츰 후원사역부 중보기도팀원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작년 가을부터는 목요일에만 하던 중보기도모임을 화요일과 수요일도 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도 중보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어떤 날은 기도 할 장소가 없어 교회 카페에서 기도했고, 자리가 없으면 교회의 후미진 곳을 찾아가 기도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자하는 마음이 불이 붙은 듯 뜨거웠

다.

후원사역부에 속한 중보기도팀은 정해진 대륙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는 아프리카 중보기도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가장 먼저 선교사들의 기도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내 마음은 이미 선교지에 향해있다.

온누리에서 온 편지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이다. 어느새 나의 관심사가 달라졌다. 아프리카 관련 책만 보고, 아프리카 기도편지가 집에 도착하는 날이면 가슴이 뛰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장을 보러갈 때도,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내 손에는 항상 온누리에서 온 편지 아프리카편이 들려있다.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선교사의 기도편지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나님이 중보기도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지금은 아프리카의 이름, 교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감사기도가 절로 흘러나온다. 내가 매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다. 끝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 젊은부부학교 참가한 자녀의 간증



/ 우승연 학생(15세)

가장 큰 선물

젊은부부학교는 기쁨과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다. 내가 처음 젊은부부학교에 간 것은 7살 때였다. 계절은 가을이었다. 좋은 계절에 온 가족이 젊은부부학교가 열리는 가평에 가는 것만으로도 무척 좋았다.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떨어지는 게 싫었는데 조금씩 젊은부부학교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그렇게 4주가 지났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평평 울었다. 아빠는 내가 우는 것을 싫어할 정도로 엄한 분이셨다. 그런 아빠가 아무런 말도 없이 평평 우는 내 모습을 보고 어지간히 당황하신 것 같다. 왜 우느냐고 물어보는 아빠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다. 한참 후에 엄마한테 귓속말로 왜 울었는지 말했다.

“가평에 다시 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요.”

내가 그렇게 울었던 것이 아빠는 무척이나 신경 쓰였던 것 같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약속을 하셨다.

“내년 봄에 다시 오자.”

코흘리게 어린이였던 나는 어엿한 중학생

이 되었다. 그날 이후 아빠는 계속 젊은부부학교를 섬기고 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섬기고 있다. 젊은부부학교 안에서 우리 가족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쭉쭉 자라고 있다. 젊은부부학교에 처음 갔을 때에는 남동생이 2명이었는데 어느새 2명의 남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더 생겼다.

젊은부부학교와 함께 성장하면서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다. 분노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나주셨다는 것이다. 아이 여섯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엄마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 아빠는 여전히 무서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가족의 제사장이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변화였다.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가족의 결론이 될 수 없다. 가끔씩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젊은부부학교에 가는 상상을 한다. 즐거웠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평안해진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가장 큰 은혜다.

■ 농어촌선교팀 간증



/ 구자엽 팀장(서빙고 농어촌선교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2014년 11월 경남 산청에 위치한 내대교회를 방문했다. 청학동을 거쳐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산비탈이 심한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다. 그곳이 내대교회였다. 농어촌선교팀과 먼저 협력사역을 하고 있던 진주 초원교회 이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를 추천해줬다.

우리가 내대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의 반응이 의외였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지?”하는 반응이었다.

내대교회의 상황은 심각했다.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할 정도였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웠고, 재정상황도 심각했다. 그렇게 2015년부터 내대교회와 협력사역을 시작했다. 재정지원(월10만원/3년간)과 아웃리치를 갔다. 첫 아웃리치에서는 내대교회 성도들과 주일예배를 함께 드렸고, 한방의료사역과 전기배선 공사를 해줬다. 7월에는 농어촌선교팀과 S브릿지공동체가 연합아웃리치를 실시했다. ‘도농브릿지판매대’에서는 내대교회

에서 생산한 꽃감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농어촌선교팀은 신규 재정지원 예정 교회들을 탐방하던 중에 연락 없이 내대교회를 다시 방문했다. 목사님께서 무척 반겨주셨다. 다시 찾은 내대교회는 상당히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다. 내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분명 달라져 있었다. 어두운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궁금했다. 가끔 하나님께 궁금하다고 기도한 적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셨다.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 교회가 생기 있게 변하고 있었다. 우리의 사역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역에 임하는 발걸음이 더욱 활기차졌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너져가는 농어촌교회를 마음에 품기를 소망한다. 농어촌선교팀과 함께 사역하기를 기대한다.

■ 세례간증



/ 김찬영 형제(Pole2공동체)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당연히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뜨겁게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큰 감동을 받고 그날 이후 큐티와 기도생활을 이어갔다.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고, 그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

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다. 그때는 이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다.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보니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내 자신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모습도 있었다. 이런 내 모습에 실망하고, 절망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라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말씀해주셨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한 내 고백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주셨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한다. 구원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 나를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해주실 것을 믿는다.

장로칼럼

한국 교회 희망을 찾자



/ 박현구 장로
(산본안산공동체)

오는 6월 장로수련회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교회의 당면 문제와 목회 비전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장로수련회 주제는 ‘차세대와 대청’이다.

나는 이번 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차세대와 대청 담당 장로님들로부터 발표 자료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었다.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 세상은 청소년들이 살기 매우 어렵다. 동성애, 학교 폭력,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리는 등 탈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교회, 사회가 다음세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짧은 소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차세대 문제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선교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고생 크리스천 비율이 80년대에는 15%, 90년대에는 12%였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7%로 하락했다. 현재는 3%정도라고 한다. 차세대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그 어떤 문제보다 차세대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3% 이하면 선교 대상이다. 차세대는 이제 중요한 선교 대상이 되었다.

위기에 처한 차세대들을 위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차세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사와 교역자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차세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공간 문제도 있다. 성경공부를 하거나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부모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주일학교는 탁아소가 아니다. 아이들을 맡겨놓는 곳이 아니다. 입시만 강요하기보다 가정에서 말씀공부와 기도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라고 한다.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등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청년들에게 교회가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은 떨어진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소명감과 유연성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싶다. 특히 대기업에만 가려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전체 기업 중에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된다. 대기업의 문이 열리기만 하염없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직업에 대한 소명감과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면 대기업만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을 찾을 수 있다.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제를 주제로 1박2일 동안 논의한다고 풀여지는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의논하면서 로드맵을 그리다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권사칼럼

한땀사역을 아시나요?



/ 박경희 권사
(한땀사역팀)

한 땀 한 땀 정성껏 선물을 만들어 선교지에 보낸 지 17년이 되었다. 만드느느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해왔다.

1,000개가 넘는 코사지(꽃 장식)를 만들어 해외비전교회에 전도용품으로 보내기도 했고, 아웃리치 선물로 작은 지갑을 만들어 보낸 적도 있다. 그것이 ‘한땀사역’의 시초다.

잠시 고국에 온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던 중 기층 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선교사는 소명으로 사역하지만 그동안 선교사의 자녀들은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롭습니다. 혼자 집 밖에서 놀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자녀들이 혼자서라도 놀 수 있도록 인형을 만들어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보낸 선물을 받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보낸 편지를 받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었다. 마음이 울컥했다.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짚은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색을 아셨어요?”
“아이 생일선물을 못 샀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보내주신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인형을 쥐도 싫데요. 울기만 해요. 똑같은 인

형을 하나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에 잘 때 인형이 없어 질까봐 고무줄로 몸에 감고 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가 보낸 인형을 통해 치유 받고, 위로받는 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정성들여 만든 선물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 어떤 분은 이 사역이 매우 귀하다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한땀사역팀을 만들기도 했다.

블로그(blog)를 통해 전문가들도 동참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넉크리스천이다. 매년 초 그들이 아이템과 수량을 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미션을 완수하고 있다. 우리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정성을 쏟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받는다. 선교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천사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해줬다. 2013년에는 621개, 2015년에는 1,515개를 보냈다. 한땀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넉크리스천들에게 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 하나님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사역을 통해 넉크리스천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계신다.

올해는 성경인물이나 노아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만들 계획이다. 이미 여러 종류의 동물인형이 탄생했다. 한땀사역은 단순히 선교지에 선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선교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감동을 보내는 것이다. 기층 뭉클한 감동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박경희 권사(010-4788-0560)



신양에세이 한화수 목사(요셉공동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 삶과 시간이 남아 있다. 그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아는 바는 구원받은 이후 삶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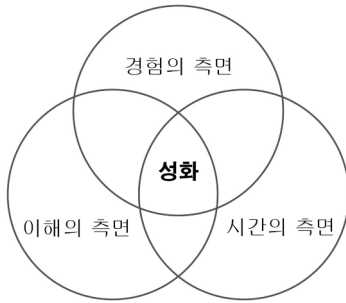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나의 달려갈 길은 남은 삶과 시간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 삶과 시간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금 여기서 기다리며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남은 삶과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답할 수 있다.

첫째, 경험이다. 남은 삶과 시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겪게 된다는 의미다. 살아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남은 삶에는 실패, 절망, 아픔, 눈물, 고통, 어둠, 관태 등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원치 않는 삶은 피하고, 원하는 삶만 취

하며 살아갈 수 없다. 겪고 싶지 않아도 겪게 되는 것이 남은 삶과 시간이다.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말처럼 삶을 살기에 무엇인가를 겪는다.



구원 이후의 삶에서 만나는 세 측면.

둘째, 이해다. 남은 삶과 시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의미다. 아무것도 겪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무런 경험이 없다면 아무런 이해도 없다. 배를 타보면 항해를 이해할 수 있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보면 미술을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깊은 영향을 준다. ‘실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기에 실패를 겪게 된다’는 말처럼 실패 경험은 단순한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배움과 이해에 영향을 준다. 남은 삶과 시간에 무엇인가를 겪게 되는 것은 무언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시간이다. 남은 삶과 시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고, 말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는 말을 들으며 조금씩 익힌다. 시간이 지나야 말을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남은 삶도 그렇다. 남은 삶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도 이해한다. 시간 속의 경험이고, 시간 속의 이해인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에 충실하면서 그 때를 준비해야 한다.

구원받은 이후 남은 삶은 경험과 이해와 시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져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적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변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갈 3:8~11).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갈 2:16)

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지키는 선한 행위는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입니다.

세 가지 ‘전가(Imputation)’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한 단어를 알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단어는 ‘전가’입니다. 영어로 ‘Imputation’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 진다는 것은 세 가지 전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다윗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과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처리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가 전가된 상태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은 이 전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으므로 내가 당할 징벌을 이 제물이 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전가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전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생명과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을 철저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죽음이며,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겉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기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철저한 죄인, 완전히 부패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며,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체험한 자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진리가 온 세상에 증거될 소망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성주 정로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선배의 도움으로 복음을 접하고 회심했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값은 사망이며, 누군가 피를 흘려 죽어야 하며, 그 귀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었다. 죄를 덜 범하며 젊은 시절을 살아왔다고 자만하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 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 및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30세가 되던 1985년 가을은 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었다. 그간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인 됨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으로 내 죄가 탕감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훈련을 더 받고자 ‘MD Anderson Cancer Center’에서 혈액학 전임의 과정을 받고 있었다. 그 훈련 기간 중에 나는 사람의 피 한 방울에 기적의 개 이상의 적혈구(산소를 나르는 기능)가 있고, 기 백만

개 이상의 백혈구(외부의 균들과 싸우는 기능 및 면역을 좌우함)와 일억 개 이상의 혈소판(출혈 시 출혈 방지) 등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피세포들의 오묘한 기능들과 조화에 매료되어 있었다. 놀라운 것이 또 있다. 다른 장기이식과는 달리 적혈구를 수혈할 때는 ABO형만 맞다면 조직항원(HLA)을 갖고 있지 않아도 용이했다. 다른 세포들과는 달리 적혈구는 산소가 없어도 몸 안에서 120여 일을 거뜬히 살 수 있다. 이러한 피세포들이 매일 1조(10¹²)개씩 70~80년간 꾸준히 만들어진다. 동일한 수의 피세포가 몸에서 적절히 사라진다. 이러한 조화가 깨질 때(예를 들어 필요량의 두 배가 생성된다든지 또는 사라져야 할 세포들이 반 정도만 사라진다든지)몸 안에 천문학적인 피의 세포들이 축적이 되어 백혈병 또는 그와 유사한 악성 혈액질환이 된다. 매일같이 1조개의 혈액세포(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를 만드는 과정의 원조(元祖)인 조혈모세포는 다 합쳐도 1만개밖에 되지 않는다. 해가 뜨면 1만개의 조혈모세포로부터 1조개의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고, 해가 지면 1만개의 조혈모세포가 자신을 새롭게(renew)해가며 일생동안 항상성(노화되지 않으며 젊음을 유지하는 능력)을 지속시킨다.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시편 기자가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renew) 하소서”라

피와 복음(福音)

고 한 것과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renew)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나오는 ‘새롭게’라는 단어와 사람이 태어나서 70~80년간 살아가며 조혈모세포를 매일 새롭게(renew)한다는 단어가 동일하다.

나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을 10여 년 동안 섬기고 있다. 소그룹을 통해 낮은 자존감, 우울증, 인격의 손상 등으로 고생하는 형제자매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회복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 핵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존귀한 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피는 너무 존귀하기에 가격을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4리터 이상의 존귀한 피를 쏟으셨다.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과 존귀함을 회복시키셨다. 예수님의 희생(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딸, 왕의 아들이 되었다. 지구상에 7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르다. 대단히 독특하고 유일하게 지어졌다. 부모님이 결혼해서 우리를 낳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일그러진 모습과 인격의 결함이 있어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품성을 회복할 수 있다.

Acts 29 게시판

2016년 3월 6일(주일) | 제1089호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종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9:0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제6기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기간: 3월 26일~6월 4일(매주 토) 시간: 오후 2시~6시 장소: 두란노빌딩 101호(서빙고) 대상: 자신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 문의: 손원민 팀장 010-8932-9901 온누리라이딩 회원모집 가입: 밴드 온누리라이딩 검색 후 신청 문의: 정진욱(010-3605-9971)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 모집 요일 : 매주 토요일(예절강의있음) 시간 : 오전9시~오후2시 지원자격: 등록교인, 일대일수료자 제출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CMN 마하나임팀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남부교회 (종로구 창신동) 일시: 3월 27일 (주일) 오후 2시 남부교회 사역내용: 의료, 미용, 한방, 수기 치료, 경 로사진, 진료 지원 연락처: 팀장 권세윤 (010-8898-3719) CMN 마노아팀 아웃리치 봉사자 모집 장소: 안변중앙침례교회 일시: 3월 20일 8시 서빙고 출발, 양재 경 유하지 않음. 참여대상: 의료 봉사에 관심있는 모든 분 연락처: 송영주 팀장(010-3005-4787) CMN라파팀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봉사자 모집 내용: 외국인 근로자 진료봉사하실 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시: (의사)매월 4째 주일 오후 4~6시 (간호사)2,3주 주일 4시~6시 (치위생사) 1,2,3,4 주일 4시~6시 문의: 심형섭(010-3227-9915) 온사랑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만 13세~ 만 35세 발달장애인 모집: 여자 10명 내외, 남자 5명 내외 연습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연습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문의: 문소현 총무(010-8784-6895)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일본어 중급반 기간: 3/8-6/28매주 화요일13:00-15:00 장소: 선교관1층 Acts29홀 자격: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자 문의: 한행자 권사(010-7738-3604)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8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순장사관학교 29기 기간: 3월 13일~5월 29일 시간: 매주 주일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양재 드림홀 인원: 80명 문의: 윤여빈 팀장 (010-8865-8469), 정호영 간사(02-570-7447) 양재 공사랑 회원모집 대상: 축구를 통한 선교에 관심있는 온누리교인 or 가족 환영 일시: 매주 토요일 9시~11시 문의: 오명석 총무 010-6470-7131 2000선교 프랑스어 특강(기초과정) 일정: 3월 7일~4월 25일(매주 월) 시간: 초보자 강의 I 오후 7:30~8:20 초급 프랑스어 II 오후 8:40~9:30 장소: 양재 비전홀A(지하 2층) 회비: 각 강좌별 15,000원(간식비 포함) 문의: 김가정 총무(010-3912-9393) *게시판 광고기대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학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11:30 / 유치부-오전9:00,11:30, 2:00

유년부-오전9:00,11:30 / 초등부-오전9:00

초등2-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한사랑예배(새터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 11:30 경찬홀(204호)

영어 예배 어린이(EM)

오전 9:00 비전홀(508호)

수 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5부 오후 4:00 (대학청년) / 6부 오후 7:00 (찬양예배)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어노인팅예배

매주 수 오후 7:45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유아부 오전 9:00, 11:30, 유치부 오전 9:00, 11:30

유년부 오전 9:00, 11:30, 초등부 오전 9:00, 11:30

중고등부 오전 9:00 비전홀, 믿음홀

영어예배

아동 주일 오전 11:30 사랑홀

중고등부 오전 11:30 믿음홀

성인 주일 오후 2:00 믿음홀

대 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꿈(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힌두권) 매주 주일 저녁 8시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집회 저녁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4층 미션홀

유치부 오전 11:30 5층 두란노홀

유년부 오전 9:00 4층 미션홀

초등부 오전 9:00 5층 두란노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영아)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인 천

O32.437.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9시 캔벤시아 113, 114호

2부 오전11시 캔벤시아 113, 114호

3부 오후2시 캔벤시아 113호

차세대예배

-캔벤시아(오전11시)

영아부 102호/유치부 107호/유년부 109호/초등부 106호

-프리스페이스6층

중등부 오전 11시/ 고등부 오전 9시

대학청년예배

오후2시 프리스페이스6층

장애우예배(사랑부)

오전 11시 캔벤시아 104호

국제예배

헤브라키즈 오후2시 캔벤시아 108호

몽골어예배 오후2시 스마트밸리

수요오전예배(매주 수 오전 10:30 프리스페이스6층)

수요부흥예배(매주 수 저녁 7:40 프리스페이스6층)

강 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O31.335.9686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 11:00 / 3층 주선애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지하1층 무아홀

꿈이 자라는 땅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파워웨이브 / 11:00 / 3층 캔벨홀

대학청년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 5:20 / 1층 시안홀

수요오전여성예배 / 10:30 / 2층 아랜젤러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 | 2016년에도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예수님의 사선이 머무는 곳, 그 곳에 CGN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의 고향 **농어촌교회**를
일궈가는 사람들, 이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의 참 의미를 돌아봅니다.

민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탈북민들과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준비합니다.

통일복소리 / 함께 갑시다

 통일복소리: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함께 갑시다: 6월 방송 예정



한국교회의 소망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제공합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금요일 오후 5시 20분



예수바보행전의 주인공!
우리 이웃 속 예수님을 보여 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납니다.

거룩한 바보들 (가제)

 6월 방송 예정



Tv 프로그램



▷ 나침반 바이블

-3/10(목) 오전 11시

통통박사 조병호 박사 출연.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
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3/10(목) 오전 11시 30분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일사각오'에
출연한 이지형, 설지운 배우의 신앙간증과 영
화이야기입니다.



▷ 토크콘서트 힐링유

-3/11(금) 오후 10시 40분

가수보다 복음전도사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
역되고 싶은 감성전도사 김관호의 이야기입니
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3/6(주일)	3/7(월)	3/8(화)	3/9(수)	3/10(목)	3/11(금)	3/12(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민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지구촌 반상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 복음강해(영어자막)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민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16:5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3:50 페리 노블의 결혼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순복음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민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김웅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할렐루야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신학자들의 이슈&토크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세브블레싱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N2) 15: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순복음교회) 20:1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요나서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19:00 마이클 프로스트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0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